

(EN)

Reading Roland Barthes' 'Leaving the Movie Theater' sparked a few points of reflection:

### 1. The Aesthetics of Passivity

Barthes describes film spectators as passive, but this passivity is crucial for deeper aesthetic engagement. Referring to Kant's idea of aesthetic judgment, passivity allows the viewer to appreciate the artwork without personal desires or practical concerns, enabling a richer experience. In Kant's theory, this disinterestedness is what lets us engage with art purely for its beauty. When does passivity become an active aesthetic experience? While we may seem passive when watching a film, internally we are actively interpreting and feeling.

### 2. Urban Space and the Movie Theater

Barthes presents the movie theater as a secluded space within the city, a place where we escape from urban chaos. This concept can be related to Foucault's notion of heterotopia, which refers to spaces that are separated from everyday reality yet deeply connected to it. In this sense, the movie theater functions as a heterotopic space that offers a temporary break from reality while still being part of the city's structure. What role does the theater play as a heterotopia in the urban environment? It allows us to suspend reality for a while, creating a reflective distance from the city.

(KR)

롤랑 바르트의 'Leaving the movie theater'를 읽고 몇 가지 생각할 점이 떠올랐다.

### 1. 수동성의 미학

바르트는 영화 관객이 수동적이라고 묘사하지만, 이 수동성은 더 깊은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칸트의 미적 판단 이론에 따르면, 수동성은 개인의 욕구나 실용적 관심에서 벗어나 예술 작품을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무관심성이라 하며, 관객이 작품을 오직 아름다움 그 자체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수동성은 언제 능동적인 미적 경험이 되는가? 비록 외적으로는 수동적이지만, 관객은 내부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을 느끼며 능동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 2. 도시 공간과 영화관

바르트는 영화관을 도시 속 고립된 공간으로 묘사하며, 이는 도시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장소가 된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데, 헤테로토피아는 일상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일상의 일부로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화관은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지만, 여전히 도시 구조 안에 속해 있는 공간이다. 영화관은 도시 환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영화관은 우리가 현실을 잠시 유보하고, 도시와 거리를 두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